

## ◆ 땅에서 올라오는 또 다른 짐승 ◆

요한계시록 13:11-18

11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 [서론]

####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결과

하늘에서 패배하여 땅으로 내어 쫓긴 용(사단)은 지상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할 두 하수인들을 역사의 무대 위로 차례로 불러낸다. 계시록은 그것을 두 짐승으로 묘사하고 있다.

(1)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으로 용(마귀, 사탄)의 아들 ① \_\_\_\_\_ (계 13:1-10)

(2) 땅에서 올라오는 ② \_\_\_\_\_ (계 13:11-18)

둘 다 하늘이 아닌 바다, 땅에서 올라옴을 주목하여야 한다. 용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적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권세, 능력, 보좌를 준다(계 13:2)



## [본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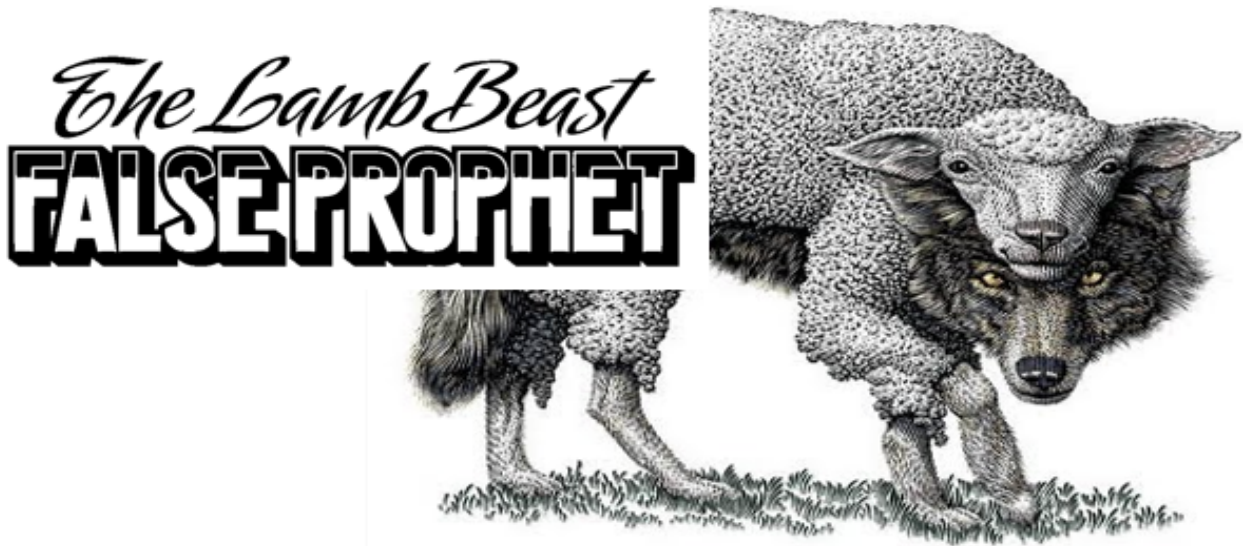
### 또 다른 짐승과 첫번째 짐승의 관계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한다. (계 13:12) 마치 성부가 성자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성령께서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도록 도와 주시 듯 마귀도 ③\_\_\_\_\_내는 것이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려다 타락하여 쫓겨 난 자가 사탄이다.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예나 지금이나 '④\_\_\_\_\_ 흉내'를 내고 있다. 그러나 666은 777에 가장 가깝기는 하나 항상 미치지 못한다. 도전하고 대적하고 대들지만, 결과는 언제나 패하고 또 패하고 또 패할 뿐이다. 그러다 역사의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사로잡혀 영원한 불못에 던져져 역사 속에서 영원히 사라진다.

### 땅에서 올라온 두번째 짐승

두번째 짐승은 반대로 ⑤\_\_\_\_\_과 같이 매우 유순한 모습으로 땅에서 올라온다. 여기서 '용처럼 말한다'는 것은 용과 사상과 DNA가 같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용은 온 천하를 피는 자(계 12:9)기 때문에 이 짐승도 유창한 연변과 논리로 사람들을 속인다.



따라서 이 두번째 짐승의 정체는 ⑥ \_\_\_\_\_다.(계 19:20)

그가 하는 대표적인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은 사람들을 ⑦ \_\_\_\_\_하여 첫째 짐승 즉 적그리스도에게 경배케 한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할수록 이런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은 극심해질 것을 예수님은 일찍이 경고하셨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마 24:24)

사람들이 묻는다. '왜 유독 개신교에 이단이 그렇게 많은가?' 분명한 사실은 '짜퉁'은 '명품'에만 있지 싸구려에는 없다. 이는 개신교의 복음이 '명품 중의 명품'이라는 증거다. 그래서 1세기에 시작된 원초적 복음은 시대마다 안팎으로 '다른 복음'(고후 11:4) 혹은 '유사 복음'(pseudo-gospel)으로 변질의 위험에 노출되곤 했다.

이단은 아니지만 유사 복음, 거짓 복음 중 하나는 바로 번영신학(prosperty, gospel)이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번영과 성공을 준다고 믿고, 성경 전체를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어진 계약으로 이해한다. 적극적 사고방식, 긍정의 힘 등이 그것이다.

오늘날 현대교회는 새로운 종류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팬데믹을 지나며 목회 현장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⑧ \_\_\_\_\_세상은 종전의 오프라인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선교의 가능성과 확장성까지 지니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의 치명적 한계가 있다. 온라인 예배라도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지만, 그것이 ⑨ \_\_\_\_\_ 예배를 대신할 수는 없다. 온라인 예배에는 봉사과 섬김, 양육과 훈련이 빈약하며 전통적 선교가 묶이게 됐다. 온라인 예배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성도들과의 격의 없는 교제가 약하다.

## [결론]

그러므로 말세를 만난 우리는 “또 약속하실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히 10:23-25)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고난 중에도 승리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다.

## [적용과 기도]

❖ 오늘 배운 내용을 삶 속에서 함께 기도합니다.

- 교회와 성도를 미혹하는 사단의 공격이 있음을 깨닫고 늘 깨어 기도합니다
- 내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흥내 내려는 교만한 마음은 없습니까?
- 온라인 세상에 휩쓸려 가는 나의 영적 나약함은 없지는 나누고 함께 기도합니다.

**[정답]**

- ① 적그리스도
- ② 또 다른 짐승
- ③ 흉내
- ④ 하나님
- ⑤ 어린양
- ⑥ 거짓선지자
- ⑦ 미혹
- ⑧ 온라인
- ⑨ 성전